



순창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개분야 사업에 대해 60억원을 투자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나서

순창군, 60억원 투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 300농가 육성 키로

순창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개분야 사업에 대해 60억원을 투자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이 선정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개 분야는 친환경 축산물 육성, 축종별 명품화, 축산관광 육성, 방역 및 재해지원, 축산기반 조성 분야다. 군은 이미 집행률도 60%를 넘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우선 육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추세에 따라 축산분야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128가구, HACCP 인증농가는 44가구, 동물복지 인증농가도 2가구로 해마다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인증비 지원, 무항생제재 구입 지원 비를 꾸준히 늘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300농가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축종별 명품화의 핵심은 흑염소 산업 육성이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흑염소 산업을 본격 육성해 현재 사육두수를 13,000여 마리까지 끌어 올렸다. 전라북도 내 1위면서 28%를 점하는 비율이다. 군은 2020년까지는 20,000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상식 축사 등 흑염소 사육 현대화 사업에 올해도 4억 8천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흑염소를 활용한 특색 있는 요리도 개발해 순창군축산발전연구회 협동조

합과 관내 식당 등에 기술이전도 실시해 흑염소 소비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유전자원관리, 고품질 축산물생산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사업, 축산기자재지원 등을 추진해 한우농가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축산업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강천산 주변일대에 축산진흥센터 및 공공승마장 조성이 10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은 이에 맞춰 전문승마 사범생 산사업과 학생승마 및 어린이 체험 지원사업을 진행해 승마를 관광은 물론 농민 소득사업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수상

브랜드 경영부문... 복분자 등 활용에서 인정받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2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브랜드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브랜드경영, 리더십경영, 사회적책임경영, 시민중심경영' 등 분야별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만들어가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이를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제정됐다. 고창군은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장어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화개선과 치유음식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

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함께 고창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과 친환경 체험관광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주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군은 또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

남원시, 66가구 조성 완료 · 신규사업지 22개소 선정

귀농귀촌 1번지 남원시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소규모 샵터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은 운봉, 금지, 사매, 이백, 산내 등 10지구 66가구의 보금자리 조성이 완료되었다. 운봉 군화동, 준항, 신기 3 지구는 현재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또, 귀농·귀촌 심의회를 거쳐 신규 사업 예정지 2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운봉, 대산, 산내에 4개 지구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은 남원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귀농귀촌인 5가구 이상이 단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마을 기반시설(상수도, 오페수시설, 도로, 전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예정 가구 수에 따라 5천만원(5가구)에서 최대 1억원(19가구)을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소규모 샵터는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귀농·귀촌인의 관심과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타 시·군의 벤치마킹 및 귀농귀촌 지원사례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등 성공적인 귀농·귀촌 시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 소규모 샵터를 자연친화적 전원생활 단지, 6차 산업 및 농업창업 단지, 기존마을과 연계한 지역유대 단지 등 다양한 특색을 지닌 곳으로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는 올해 들어 6월 말 현재 435가구가 귀농·귀촌해 850가구 유치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환주 시장이 취임한 이후 누적 귀농·귀촌이 2,141가구에 달해 귀농·귀촌 1번지 남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시청형안 공유 초청 간담회 실시

남원시가 26일 발전협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시청형안 공유와 자문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직접 접하는 발전협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모셔 시청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과 자문의 시간을 갖고 시청에 대한 고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 동력을 마련한다는 이환주 시장의 강조에 따른 것이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

에서는 11시부터 남원예촌 조성, 한(韓)문화 아트밸리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서남대학교 정삼화 추진 및 공동대책,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대응 등 시청 각종 현안에 대해 이환주 시장이 직접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토론과 자문이 끝난 후 주요 현안 사업장 6곳을 방문하여 사업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시, 자전거 축광반사지 부착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학교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자전거 후미에 축광반사지 부착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자전거를 주로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순창관내 초, 중, 고교 및 노약자, 여성, 청소년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 성능이 우수한 축광반사지 1,000매를 제작 학교 및 노인정 등을 방문 자전거 후미에 축광반사지를 부착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규운 서장은 "전거, 이륜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 하기 위해 축광반사지를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수확여행버스 안전교육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캔싱턴리조트 앞에서 울산현대고 수확여행단 전세버스 운전자 5명을 상대로, 음주감지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통관리계는 최근 전세버스 대형사고로 인한 사례 설명과 더불어 수확여행·체험학습 승용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주감지기를 이용,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휴가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쌍심 경비교통과장은 "학생들의 즐거운 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 주민 개방

국내 최대 토굴형 저장고인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이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됐다. 군은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효소스 토굴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부터는 일요일에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다.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순창군이 완공한 국내최대 토굴형 저장고다. 길이 134m, 최대폭 40m에 면적 4,130㎡ 규모다. 고추장, 된장, 와인 등 발효식품의 저장을 위해 평균 기온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트리아트, 소스기획관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8월 부터는 카페도 정상 운영 계획이다. 군은 발효토굴이 한여름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관광프로그램구성 체계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구성을 체계화하고 있다. 고창군 식도라마을체험사업단(단장 이승호)과 고창군 상하농원(대표 박재범)이 군청 상황실에서 식도라사업단과 각 식도라 마을 대표, 상하농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전했다. 협약을 통해 상호 활발한 관광업무 교류 및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고창군 관광자원의 가치향상을 함께 도모해 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식도라마을의 다양한 향토음식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마을관광프로그램에 상하농원의 뛰어난 전경과 유기농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아이스크림체험, 농장 체험, 소시지체험, 치즈체험, 빵 체험)을 접목시켜 고창군관광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